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13**  
NOV 27 2019

발간년월 2019년 11월 27일 (통권 제11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러시아, 냉장 컨테이너 자체 생산
- 유럽~중국 간 화물 철도운송 활발
- Russian Railways Logistics, 중국에 첫 식품 운반 컨테이너 열차 운행
-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조지아 구간 건설 재정 지원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제1회 국제투자포럼 개최

## 주요 통계

- 2019년 9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 주요 동향



### 러시아, 냉장 컨테이너 자체 생산

#### ■ ‘Uralvagonzavod’사는 2022년까지 연간 약 500개의 냉장 컨테이너를 생산할 계획임

- 본 사는 러시아 국내 생산용 냉장 컨테이너 개발 입찰에 성공함
-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냉동장치를 외부 에너지와 연결시킬 수 있게 자율 냉장장치 및 전체 자동화된 냉장 컨테이너를 러시아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것임
- 현재 40ft 냉장 컨테이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승인을 받음

#### ■ ‘Uralvagonzavod’사의 자회사인 ‘Omsktransmash’사에서 컨테이너 생산 인증을 위해 2020년까지 6개의 프로토 타입을 제작할 계획임

#### ■ ‘Uralvagonzavod’사의 키릴 토마쉬크 부국장은 러시아 내에서 냉장 컨테이너가 생산됨에 따라 러시아 운송기업의 외국 냉장 컨테이너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냉장 컨테이너는 주로 중국에서 제조된 것임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transport/cherez\\_tri\\_goda\\_-uralvagonzavod-\\_zamorozit\\_rynok\\_otechestvennymi\\_refkonteynerami.html](http://logirus.ru/news/transport/cherez_tri_goda_-uralvagonzavod-_zamorozit_rynok_otechestvennymi_refkonteynerami.html)(검색일: 2019년 11월 24일)

## 유럽~중국 간 화물 철도운송 활발

### ■ 올해 11월 중국 소비자용 유럽제품을 실은 천 번째 컨테이너 고속열차가 벨라루스 브레스트에서 러시아 자바이칼로 출발함

-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운송회랑 프로젝트는 러시아철도공사(RZD), 'Far East Land Bridge', 'RZD Logistics', 벨라루스 철도, 'Belintertrans', 'TransContainer'의 협력으로 실현되고 있음

### ■ 이번 열차는 40ft 컨테이너 71개를 운송하며 이중 약 40개의 컨테이너에는 BMW 자동차 부품이 적재됨

- 나머지 컨테이너에는 철, 금속, 장비, 자동차 장비 등이 실려 운송됨
- 이와 같은 고속열차는 BMW, Volvo, Volkswagen, Daimler-Benz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로 이용함
- 본 열차는 중국 선양역에 도착해 중국 각 지역으로 운송될 예정임

### ■ 이와 같은 열차는 2011년 10월부터 주 3~4회 운영되고 있으며 고속열차는 약 7~8일의 운송시간이 소요됨

- 일반열차의 경우 약 20일 정도 소요됨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 참고자료

a) <http://morvesti.ru/detail.php?ID=81420>(검색일: 2019년 11월 24일)

## Russian Railways Logistics, 중국에 첫 식품 운반 컨테이너 열차 운행

### ■ 농식품 운반열차 아그로엑스프레스, 보르시노 터미널에서 첫 출발

- 2019년 9월 21일, 칼루가 주에 위치한 보르시노 터미널과 물류 단지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식품운반열차 아그로엑스프레스가 중국으로 러시아 그레인 홀딩사의 프리미엄 밀가루 라자노치카를 40피트 컨테이너 40개를 운반함
- 라잔에 위치한 그레인 홀딩사의 제조공장에서 1천톤의 밀가루가 보르시노 터미널로 운반되어 화차에 적재되었고, 러시아의 나우시키와 몽골의 자민우드를 통과하며 약 16일의 운송기간을 거쳐 중국 톈진, 청두, 산둥성 등으로 운반됨
- 러시아산 밀가루의 구매자는 싱타이 란리 수출입회사(Xingtai Lanli Import and Export Co., Ltd)로 러시아의 그레인 홀딩사와 2029년까지 10년 계약을 체결함
- 그레인 홀딩사는 2019년에 1만 톤, 2020년에 8만 톤, 2022년 이후 매년 10만 톤 이상의 밀가루를 수출할 계획임
- 그레인 홀딩사의 최고급 밀가루 라자노치카는 전체 제품라인인 1kg, 2kg, 2.5kg, 5kg, 10kg, 25kg를 수출하며, 중국 대형마트 및 상점으로 운반되어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
- “중국에서는 러시아 제품이 품질이 좋고 친환경적이라 생각한다. 연초 중국에서 테스트 제품이 일주일 동안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었다”고 고 샤 웨이 싱타이 란리 수출입회사(Xingtai Lanli Import and Export Co., Ltd) 회장이 언급함
- 제품이 러시아산이라는 것을 중국소비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은 성분과 제조업체의 이름만이 한자로 표기됨
- Russian Railways Logistics, 러시아 수출센터(REC), FVK(Freight village Group) 세베르간의 협력각서는 9월 4일 ‘2019년 제 5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했고, 러시아 농산물의 중국 수출 및 운반 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함
- 또한 특별 고속화물열차 아그로엑스프레스는 2024년 말까지 농업 수출을 450억 달러로 늘리는 계획을 포함한 ‘국제 협력 및 수출’ 국가 프로젝트의 일부가 됨

그림 1.보르시노와 중국 간 철도(아그로엑스프레스)



- 가까운 미래에 주당 6대의 러시아 열차가 중국으로 운행되며, 이는 러시아의 동방시장 개척을 의미함
- “해상운송은 위험요소가 있고, 45~60일 가량의 시일 걸리는데 반해 철도는 모스크바에서 중국까지 9,400km 거리를 불과 몇 주 안에 운송이 가능하므로 유통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한 밀가루를 수출하는 회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고 샤 웨이 싱타이 란리 수출입 회사(Xingtai Lanli Import and Export Co., Ltd) 회장이 언급함
- “이 프로젝트는 우선 유통기간이 짧은 것을 포함하여 농산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열차는 냉장 컨테이너(RE)와 일반 컨테이너(GP)로 구성되며,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아그로엑스프레스 고속열차 편성 및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레브티나 키릴로바 러시아수출센터(REC)의 수출물류 개발 프로젝트 팀장이 언급함
- Russian Railways Logistics는 러시아 철도물류 사업 개발의 일환으로 2010년 11월 19일에 설립되어 2018년 6,63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함
- FVK 세베르는 FVK(Freight village Group)이 지분 70%, <트란스컨테이너>가 지분 30%를 보유한 합작회사임. FVK사는 모든 물류서비스 및 터미널 등을 제공하며, 보르시노 운송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김혜나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npaula@naver.com)

---

## 참고자료

- a) <http://freightvillage.ru/news/s-terminala-vorsino-otpravilsja-pervyi-agroyekspres.html>  
(2019년 11월 01일 검색)
- b) <https://www.rzdlog.ru/press/2343/> (2019년 11월 02일 검색)
- c) <https://tvbrics.com/news/agroekspres-iz-rossii-v-kitay/6917332> (2019년 11월 03일)
- d) <http://grainholding.ru/news/flour-ryazanochka-in-china> (2019년 11월 3일)
- e) [http://cargo.rzd.ru/static/public/ru?STRUCTURE\\_ID=5190](http://cargo.rzd.ru/static/public/ru?STRUCTURE_ID=5190) (2019년 11월 3일)

##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조지아 구간 건설 재정 지원

### ■ 11월 25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동서 고속도로(East-West Highway)의 조지아 리코티 고개(Rikoti Pass) 구간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건설될 도로 구간은 리코티 고개를 지나는 쇼라파니(Shorapani)-아르그베타(Argveta) 도로의 14.7km 구간으로, 투자 금액은 총 2억 7,800만 달러(한화 약 3,273억 5천만 원)로 책정되었음. 아시아개발은행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구간은 조지아 경제의 동맥으로서 일일 13,000대 정도의 차량들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투자 취지를 밝혔음
- 발레리 리삭(Valery Lysak) 아시아개발은행 중앙아시아 교통문제 선임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조지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독특한 위치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신뢰성 높은 도로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사업은 조지아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도로인프라 개선이라는 정부 정책을 촉진시킬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또한 도로 건설과 더불어 노년층 및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된 휴게소 및 상업 단지를 조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아울러 도로 개선을 통해 작년 12.3%를 기록했던 조지아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음

### ■ 앞서 언급한 구간 외에도, 조지아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 동서 고속도로의 자국 구간에 대한 개선 작업 및 신규 도로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리코티 고개를 지나는 도로는 총 51.6km의 길이로 96개 교량과 53개 터널을 포함하고 있음. 공사는 2022년 완공 예정으로, 헤비-우비사(Khevi-Ubisa, 12.2km) 구간, 우비사-쇼라파니(Ubisa-Shorapani, 13km) 구간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올 해는 4번째 구간인 쇼라파니-아르그베타(Shorapani-Argveti) 구간에 대한 입찰이 공고된 바 있음
- 동서고속도로의 정식 명칭은 “유럽고속도로 E60(European Route E60)”으로, 프랑스 브레스트(Brest)에서 출발해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를 지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흑해 경유), 다시 카스피해 항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지나 최종적으로 중국 접경지대인 키르기스스탄 이르케쉬탐(Erkech-Tam)까지 연결됨
- E60 고속도로의 조지아 영내 길이는 총 392km로, 흑해 항만 도시인 포티(Poti) 근교에서 시작해 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까지 연결되어 있음



- 이라클리 카르셀라제(Irakli Karseladze) 지속가능개발부 도로교통국장은 아제르바이잔과의 접경지대인 레드 브리지(Red Bridge·아제르바이잔어 Qırmızı Köprü, 조지아어 Tsiteli Khidi) 검문소로부터 터키 국경과 인접한 도시인 사르피(Sarpi)까지 현재 8시간이 소요되었으나, E60 사업이 완공되며 그 시간이 4시간 ~ 4시간 30분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 이와 같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조지아 지역 투자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량이라 할 수 있는 코카서스지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2. 유럽 고속도로 E60 약도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참고자료

- <https://sputnik-georgia.ru/economy/20191125/247111723/Aziatskiy-bank-profinansiruet-stroitelstvo-dorogi-cherez-pereval-v-Gruzii.html> (2019.11.26.검색)
- [maps.google.com](https://maps.google.com) (2019.11.26.검색)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제1회 국제투자포럼 개최

### ■ 지난 11월 22~23일 우즈베키스탄 역사문화의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제1회 국제투자포럼이 진행되었음

- 이번 포럼은 사마르칸트 소재 기업들의 소개와 이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전시하는 형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데에 개최 목적이 있었음
-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 지방 도시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경제 성장 잠재성을 보여주고,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었음
- 특히 역사적 콘텐츠에만 편중된 도시 이미지를 극복해, 사마르칸트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와 지역 내 기업들의 수출량을 늘리는 것을 꾀하고자 했음
- 포럼에는 총 31개국 300명 이상의 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상공회의소, 금융계, 관광기업, 외교관, 세계 각지의 투자자들이 포함되었음
- 참석자들은 사마르칸트에 소재한 Pure Milky, Agromir, SAG Gilamlari, Afrosiyob Jeans enterprises 등의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얻는 기회가 제공됨

### ■ 포럼에서는 사마르칸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제시되었음

- 사마르칸트 지역의 수출 잠재력 증가, 외국 투자 유치에 대한 매력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생산 현지화 방안, 농산물 가공 기술 습득 방안 등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이 논의되었음
- 특히 사마르칸트 국제공항의 현대화와 시내 극장시설의 아이맥스(IMAX) 플랫폼 구축을 포함해 도시 비즈니스 공유센터, IT 단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음
- 문화부문에서는 주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대사관과 사마르칸트 시가 협약을 통한 마드리드 축구단 창설 등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제안되었음
- 브리핑에 참석한 에르킨존 투르디모프(Erkinjon Turdimov) 시장은 이번 최초의 국제투자포럼이 매우 의미있으며, 사마르칸트에 총 17억 달러 이상 규모에 234개에 달하는 협약들이 오고 갔다는 점을 전했다
- 아울러 B2B(Business-to-Business), B2G(Business to Government), G2G(Government to Government) 등 다양한 상거래 운용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음

- 한편 이번 국제투자포럼은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도와 지방 도시 간의 균형 발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사마르칸트가 가지고 있는 관광 문화콘텐츠들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최첨단 기술 도입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인프라 제공 논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로서 지속적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uza.uz/> (2019.11.24. 검색)
- b) <https://aebrus.ru/> (2019.11.24. 검색)
- c) <https://www.uzdaily.com/> (2019.11.24. 검색)



## 주요 통계



표 1. 2019년 9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09 (-0.4%)	6.24 (-0.1%)	17.33	-0.3%
북극해	2.92 (+0.2%)	5.87 (-3.2%)	8.78	-1.9%
발트해	9.1 (-0.4%)	12.01 (+0.7%)	21.01	+0.2%
아조프-흑해	8.9 (+0.4%)	13.78 (+0.1%)	22.68	+0.2%
카스피해	0.19 (+2.3%)	0.51 (+11.4%)	0.7	+3.3%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에트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광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연료 및 에너지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생고무 및 화학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가죽원료, 모피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금속 및 금속 제품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계류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기타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합계	32.1 (-0.2%)	38.41 (-0.1%)	70.51	-0.1%	32.1 (-0.2%)	38.41 (-0.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9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228	298.5	8	157.3	228	298.5	8	157.3	-	-	-	-
냉동어	104,636	1,607,556.0	2,475	41,564.5	104,551	1,606,927.4	2,475	41,564.5	85	628.6	-	-
연어류	19,884	237,299.0	-	-	19,799	237,064.0	-	-	85	235.0	-	-
넙치	670	21,080.5	-	-	670	21,080.5	-	-	-	-	-	-
가자미	819	13,009.3	-	-	819	13,009.3	-	-	-	-	-	-
가자미류	2,233	28,040.5	-	-	2,233	28,040.5	-	-	-	-	-	-
청어	14,264	66,102.4	-	-	14,264	65,727.7	-	-	452	374.7	-	-
대구	3,157	149,451.2	-	-	3,157	149,451.2	-	-	-	-	-	-
명태	50,760	807,088.8	-	-	50,760	807,088.8	-	-	-	-	-	-
농어	42	1,587.4	-	-	42	1,587.4	-	-	-	-	-	-
간, 곤이 (어란)	1,582	207,262.7	-	-	1,582	207,262.7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23	12,147.8	-	-	623	12,147.8	-	-	-	-	-	-
생선필렛, 어육	3,893	150,096.7	55	2,458.6	3,893	150,096.7	55	2,458.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	1,212.4	84	4,559.9	10	1,212.4	84	4,559.9	-	-	-	-

갑각류	4,845	735,693. 2	0	0	4,845	735,693. 2	0	0	-	-	-	-
계류	4,015	665,876. 4	-	-	4,015	665,876. 4	-	-	-	-	-	-
조개류	4,664	57,210.4	-	-	4,664	57,210.4	-	-	-	-	-	-
가리비류	31	9,223.3	-	-	31	9,223.3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4,247	25,136.0	62	2,194.2	4,247	25,136.0	62	2,194.2	-	-	-	-
수산무척추동물	970	25,345.9	-	-	970	25,315.5	-	-	1	30.4	-	-
해삼류	486	6,190.1	-	-	486	6,159.7	-	-	1	30.4	-	-
성게류	294	18,698.1	-	-	294	18,698.1	-	-	-	-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